광주 대표 캐릭터 '무등산 애비뉴' 뮤지컬로 재탄생

'무등산 범이와 친구들'

무등산 전설·이야기 담아 장서희씨 캐릭터 만들고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쿨루라칸차' 뮤지컬 제작 내일 광주아트홀서 공연

광주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는 무엇일까? 20년간 디자인 작업을 해온 장서희씨는 '무등산'에서 그 힌트를 찾았다.

고향 광주를 떠나있다 귀향한 장씨는 수차례 무등산을 오르내리며 다시 보고 알게 된 무등산 이야기들에 매력을 느꼈다. 광주와 무등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이야기들,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 캐릭터 '무등산 애비뉴'를 만들고 스토리를 짰다.

그녀가 만든 캐릭터는 동물들이다. 야구와 수박을 좋아하는 무등산 호랑이 '무등산 범이', 까칠한 무등산 락고양이 '무진주', 김덕령 장군이 무등산에서 무술을 연마할 때 함께했던 백마 '의령', 신출귀몰 도깨비 '은희', 힐링토끼 '버니무토' 등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장씨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기획, 디자인, 브랜딩 전문회사 '쿨루라칸차'는 '무등산 애비뉴'의 캐릭터 작업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 뮤지컬을 제작했다. 그녀가 청년 뮤지컬 단체 창단 멤버로 활동하며 대본과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 낯설지 않았다.

캐릭터 가족뮤지컬 '무등산 애비뉴 에피소드 1-무등산 범이야 산 그늘에서 눈물 흘리지 마라'가 그 첫번째 작품이다. 20일 오후 3시·7시 두 차례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작품은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한 무등산 개발로 가족을 잃고 위기에 처한 무등산 범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 인간들의 화해와 갈등, 치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등산 자락에서 평화롭게 살던 무등산 호랑이 가족. 어느날 갑작스런 개발로 아빠와 동생 둘의 소식이 끊기고, 홀로 남은 무등산범이는 돌아올 가족을 찾기 위해 입석대, 서석대, 취가정 등 무등산 일대와 광주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곳에서 무진주, 의령, 은희 등을 만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뮤지컬 작업에는 씨소뮤지컬 컴퍼니(대표 기춘희)가 함께 참여했다. 장씨는 원작, 대본, 작사 캐릭터 개발 등을 맡고 기씨가 연출과 작곡을 맡아 무등산 범이의 테마곡 '메모리'를 비롯해 '녹색 호랑이 코트', 우린 모두 필요해, 친구가' 등 록, 랩, 블루스, 팝 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의 삽입곡을 만들었다.

출연진은 이승학·진소연·손정빈·김진영·이상익씨 등이다. 공연 당일 두차례(오후 4시~5시, 6시~6시50분) 캐릭터 배지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쿨루라칸차는 앞으로 '무등산 애비뉴' 캐릭터를 활용해 캐릭터 문화상품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무료 공연으로 감동후불제.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전화(010-22287040) 필수. 문의 062-434-53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소통하며 행복 나눠요

앙상블 'the feliz' 창단연주회…내일 금호아트홀

'음악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눠요.'

앙상블 'the feliz' 창단연주회가 20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the feliz'는 미국 신시내티 음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 'feliz'는 스페인어로 '행복'이라는 뜻이다.

앙상블 멤버는 바이올린의 한규현·한규선·이새결·천민경, 비올라 홍지희·전지윤, 첼로 최호준, 피아노 정승훈씨며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씨가 이번 연주회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에피소드 1-처음…그리고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네 대의 바이올린이 화음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조합으로 곡을 들려준다.

1부 레퍼토리는 바체비쯔의 '바이올린 사중주', 슈만의 '5중주 내림 E장조 op.44'다. 2부는 피아졸라 곡으로 장식한다. 그의 대표작 '망각'을 클린트 에드워드가 4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망각'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만날 수 있다.

한규현

정승훈

'the feliz'는 5~6월 두달 익산예술의 전당(26일), 서울올림푸스홀(6월1일), 제주 아라뮤즈홀(6월9일)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2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유영수·사진) 2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어느 봄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요, 흑인영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성자들의 행진', '성령님이 느껴질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낭만에 대하여', '걱정말아요 그대', '살짜기 옵서예',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 'Do you hear the peoplesong' 등이다. 지휘는 윤원중씨, 반주는 문선은·김정은씨가 맡았다.

그밖에 KBS어린이합창단과 광주예술고 크리산테모싱어즈가 찬조 출연, '꿈꾸지 않으면', 뮤지컬 '렌트' 중 'Season of love'를 들려준다.

IMF 외환 위기 다음해인 1998년 창단한 광주아버지합창단은 실직자 기금 마련 음악회 협연과 실직자 자녀 돕기 음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입회원을 수시로 모집하며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10시 전남대동창회관 7층에서 열린다. cafe.daum.net/tarus3190. 문의 010-3629-45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겨울 그리고 봄' 류재웅 초대전

▶'또 다른 풍경'

6월 18일까지 국윤미술관

풍성한 색채로 아름다운 지역 풍경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류재웅 작가가 국윤미술관에서 19일~6월18일 초대전 '또 다른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는 '겨울 그리고 봄'을 주제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조화를 담고 있다. 전시공간은 봄을 소재로 한 1전시실과 겨울 주제 2전시실로 나뉜다.

'겨울햇살', '또 다른 풍경' 등은 2000년대 강원 산길을 주제로 작업했던 설경(雪景) 시리즈 신작이다. 눈이 덮인 헐벗은 산을 소재로 삼았지만 차가움 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느껴진다. 굽이굽이 산길과 더불어 햇살을 가득 받고 있는 눈밭 등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한국적 운치를 표현했다.

1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산수유 마을' 연작은 희망을 의미하는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인다. 노란색이 충만한 구례 산동 산수유마을을 캔버스로 옮겨 남도 정감을 전한다.

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골 풍경에서 오는 순수함과 따뜻함, 한국적인 정서를 만나시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류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 18회, 중국 베이징, 서울, 부산 등에서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신작전, 그룹 소나무, KAMA한국현대미술작가회, 월출미술회, 아트-펀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3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루브르 리슐리 전시작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21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지행 24회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추구하는 시민강좌다.

이번 강좌는 북유럽의 회화가 주를 이루는 루브르 박물관 리슐리외관 전시작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알브레히트 뒤러와 바로크 미술의 대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를 비롯해 반 에이크, 메치스, 크라나흐, 할스 등의 작품을 감상할 예정이다.

뒤러의 대표작인 '엉겅퀴를 든 자화상'〈사진〉, 루벤스의 '동박박사의 경배', '엘렌 푸르망과 아이들', 크라나흐의 '삼미신' 등을 만날 수 있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

중외공원 이색 놀이터 개장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놀이터 조각가들 그네·의자 등 선보여

인기 나들이 중 하나인 중외공원에 이색적인 놀이터가 개장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와글와글 어린이 놀이터'전〈사진〉을 2018년 5월3일까지 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앞 잔디마당에서 연다.

이번 야외전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김희상·심우삼·이호동·이환규·조광석 작가가 제작한 그네, 징검다리, 의자 형태 목각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자연친화적인 나무를 재료로 사용했다.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성에 신경을 썼다. 벤치에는 금속종(鐘) 대신 대나무통 수십개를 매달아 놨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대나무들은 운치있는 소리를 내며 눈길을 끈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